

Contents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2008~'19년 컨테이너 해운시장 규모



이슈페이퍼

- 제조기업, 지구 온난화 대응위해 공급망 개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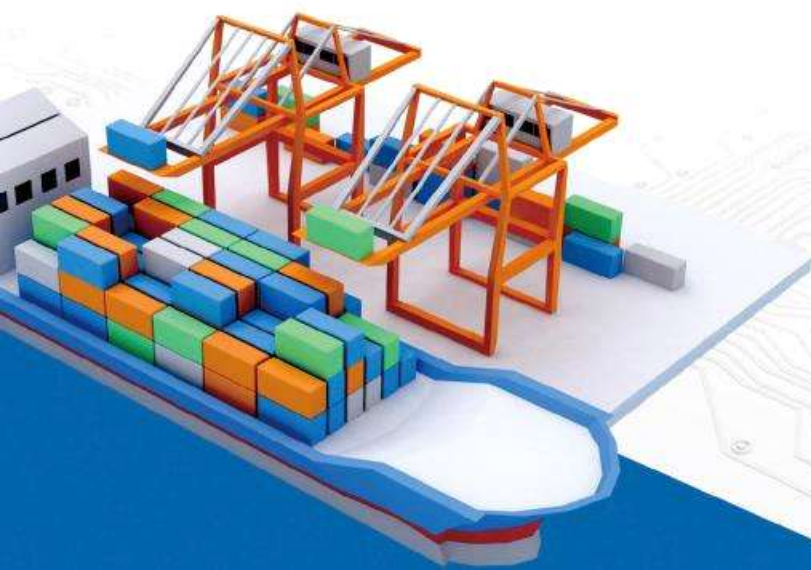
물류정책·산업동향

1. MOL, 싱가포르항 LNG 벙커링 사업 참여
2. 아마존, 자가 항공물류 사업 지속 강화
3. 밴쿠버항, 선박 소음공해 저감 위해 EcoAction 프로그램 강화

명사 스피치

“1990년대 안정됐던 해운산업은 현재 그 기반이 무너지면서 유치산업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. 유치산업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는 물론이고 해당산업과 연관 산업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. 우리 모두가 1960년대 선각자들이 해운산업을 시작했을 때와 같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”

김인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
(2019. 2. 21. / 코리아슈핑가제트 인터뷰에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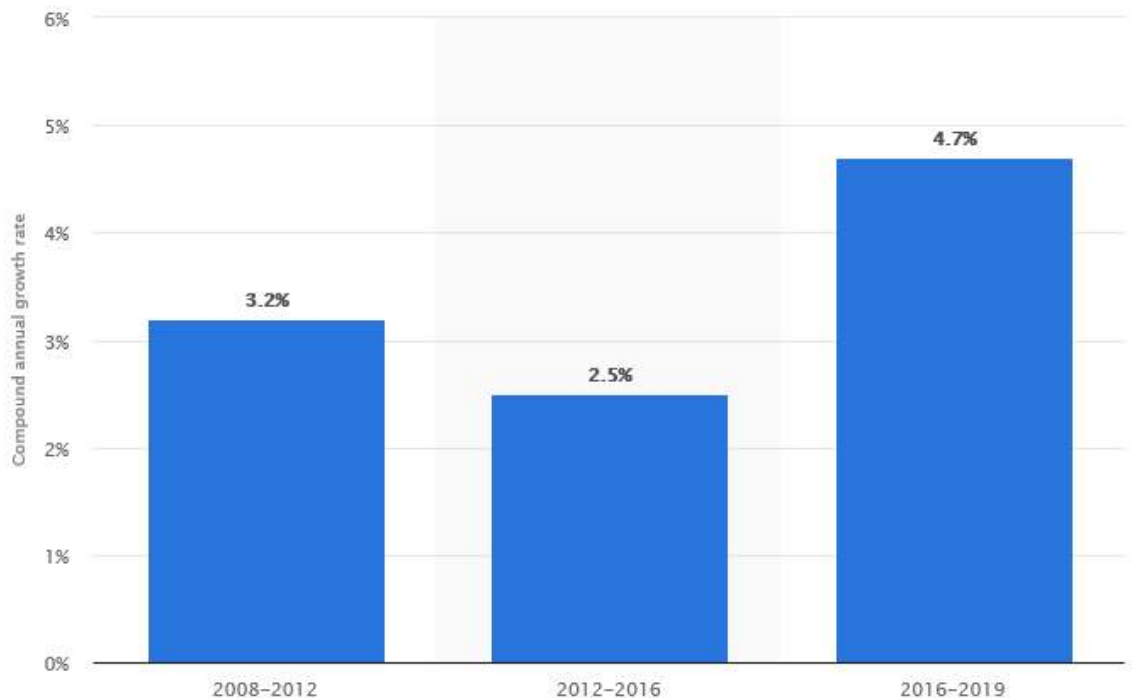
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2008~'19년 컨테이너 해운시장 규모

2008~2019년 컨테이너 해운시장 규모

자료 : <https://www.statista.com>

- 2016~2019년 기간 중 세계 컨테이너 해운시장은 연평균 4.7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2008~2012년 사이에는 연평균 3.2% 성장했으며, 2012~2016년 사이에는 연평균 2.5%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
 - 2016~2019년 기간 중의 컨테이너 해운시장의 성장률이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
- 증가하는 보호 무역주의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세계 무역의 역동성이 글로벌 공급사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
 - 이로 인해 소형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참고자료 : <https://www.statista.com>, 2019.2.

신수용 전문연구원
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

이슈페이퍼

제조기업, 지구 온난화 대응위해 공급망 개선

-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의 제조 기업이 공급망(supply chain) 및 유통구조 개선안을 수립함
 -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'생산-유통-소비'의 구조적인 개선안을 마련함
- 비영리 단체인 CDP(Carbon Disclosure Project)는 16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, 지구 온난화 등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
 - CDP 평가항목은 탄소배출, 물사용, 기후 거버넌스(climate governance) 등이며 이중평가방식(double barreled approach)을 사용함
 - CDP는 기후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책임의식이 결국 기업의 이윤과 직결될 것이며 이에 저탄소 경제 체제(low-carbon economy)에 빠르게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함
- 유니레버(Unilever), 로레알(L'Oreal)은 기업 포트폴리오,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 저탄소 경제 체제에 가장 빠르게 대응한 기업임
 - 1위인 유니레버는 저탄소 체제를 고려해 7세대(seventh generation) 소비를 포함한 기업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었고 저탄소 브랜드를 런칭함
 - 2.57로 2위를 차지한 로레알은 기후변화로부터 발생 가능한 물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공급망(supply chain)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함
 - 다논은 3.28로 3위이며 토양, 수질 및 광범위한 채식 제품(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최소화)에 투자한 결과임
- 반면 크래프트 하인즈(Kraft Heinz)와 에스티 로더(Estee Lauder)는 각각 7.54, 5.55로 하위권임
 - 이에 크래프트 하인즈는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물류 및 포장 부문의 개선안을 고려 중 임
 - 에스티 로더 또한 타겟층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시민의식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
- 퍼거슨(Ferguson) CDP 대표는 공급망, 소비자 유통(consumer distribution), 폐기물 배출 등을 통해 배출하는 온실 가스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/3 수준임을 지적함
 -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공급망, 유통구조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함

글로벌 기업의 Green Choice



주 : 점수가 낮은 기업일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가 잘된 것을 의미함

자료 : <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19-02-25/unilever-l-oreal-danone-deemed-most-ready-for-climate-change>(검색일: 2019.2.26.)

- 패션업계는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배출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
 - 패션업계는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, 16가지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음
 - 협의체에서는 이산화탄소 제로 배출을 위해 생산방식의 탈탄소화, 기후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원재료 선택, 저탄소 운송 체계 구축 등 실현가능한 개선사항 및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있음
 - 아디다스(Adidas), 갭(Gap), 휴고보스(Hugo Boss) 및 버버리(Burberry) 등 유명 패션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전체 공급망을 재검토할 예정임

참고자료 : bloomberg.com, 2019.2.26., www.supplychaindigital.com, 2019.2.26.

조지성 전문연구원

051-797-4916, jisungjo@kmi.re.kr



MOL, 싱가포르 LNG 벙커링 사업 참여

- MOL이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최대 LNG 벙커링 선박을 운영하기 위해 Pavilion Gas Pte Ltd.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
 - MOL과 Pavilion의 프로젝트는 민간부문에서의 LNG 협력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이며, 벙커링 선박은 싱가포르의 Sembcorp Marine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2021년 초 Pavilion에 인도될 예정임
 - 12,000m³ GTT Mark III Flex 멤베레인 LNG 벙커링 선박은 싱가포르에서 ship-to-ship 벙커링을 수행하는 두 번째 선박으로, 규모는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
- MOL은 벙커링 선박을 관리하기 위해 싱가포르 기반의 벙커링 선박 전문 운영업체인 Sinanju Tankers Holdings와 협업체약을 체결함
 - Sinanju社の Ju Kai Meng 전무이사는 싱가포르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벙커링 항만으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, LNG 벙커링은 초기단계이나 LNG벙커링 허브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Sinanju社가 선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언급함
- LNG 벙커링 선박은 싱가포르 LNG 벙커링 연료공급 업체인 Pavilion Gas(Pavilion Energy 소유), Keppel O&M, Shell Eastern Petroleum의 합작회사인 FuelLNG社에 임대될 예정임
 - 또한 Pavilion Gas와 Total Marine Fuel Global Solutions는 지난해 6월 dual-fuel LNG 벙커링 선박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함
 - Pavilion Energy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Temasek Holdings社가 2013년 설립했으며, LNG 부문의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음
- MPA(싱가포르 해운항만청) 또한 싱가포르항을 세계 최대의 LNG 벙커링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해 LNG 연료공급 인프라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
- MOL의 참여는 일본 정부가 해양 연료로서의 LNG 개발에 협력하고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포함한 7개국과 체결한 양해각서(MOU)의 일부임
- 국제해사기구(IMO)의 MARPOL Annex VI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발효되는 선박연료유의 글로벌 황함유량 규제로 LNG 벙커링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www.porttechnology.org/>, <http://www.seatrade-maritime.com/> 2018.2.25.

아마존, 자가 항공물류 사업 지속 강화

- 아마존이 자가 항공물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확대하고 있음
 - 최근 아마존 에어는 항공기 규모를 50대로 늘렸으며, 2021년 노던 켄터키(Northern Kentucky) 항공허브를 포함해 다수의 신규 항공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함
- 이에 따라 향후 UPS, 페덱스 등의 아마존 항공물량 처리실적 감소가 예상됨
 - 울프 리서치(Wolfe Research)에 따르면 2018년 아마존은 온라인 주문의 26%를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, 나머지는 USPS(44%), UPS(22%), 지역 특송회사(5%), FedEx(3%)가 처리하고 있음
- 아마존은 직접 수송비중 증대를 통해 수익성 및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 - 2018년 4분기 아마존의 운송비는 23%나 급등해 사상 최대인 90억 달러에 달했으며, 2018년 한해에만 운송비에 270억 달러를 지출함
 - 아마존이 직접 수송하는 경우 박스당 6달러, UPS와 FedEx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 8~9달러가 소요되어 아마존의 규모에 견주어 볼 때 직접 수송으로 적어도 수십억 달러의 운송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됨
 - 아마존은 2018년 12월 보도자료에서 새로운 항공 전용 네트워크를 이용해 하루에 수십만 개의 물량을 수송할 수 있으며, 미국 전역 어디에서나 2일 내 운송이 가능하다고 밝힘
- 모건 스탠리(Morgan Stanley)의 북미 교통 애널리스트 라비 샹커(Ravi Shanker)씨는 아마존이 물류회사로 부상하려고 한다고 밝힘
 - 아마존은 이달 초 공개된 실적보고에 처음으로 운송 및 물류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명문화함
 - 라비 샹커씨는 아마존이 앞으로 수년 내에 육상이나 항공 분야에 상관없이 최고의 물류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, 아마존이 얼마나 신속하게 그러한 전략을 추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함
 - 노스웨스턴대학(Northwestern University) Tarek Abdallah 교수는 향후 아마존이 자가 특송사업을 보다 늘릴 것이며, 역량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문은 UPS나 FedEx 등 특송기업에 아웃소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

■ 참고자료 : <http://www.supplychain247.com/> 2019.2.19.

김은우 전문연구원

051-797-4680, hisgrace@kmi.re.kr



밴쿠버항, 선박 소음공해 저감 위해 EcoAction 프로그램 강화

- 캐나다 서부 밴쿠버 프레이저 항만국(Vancouver Fraser Port Authority)은 브리티시 컬럼비아(British Columbia) 남부해안의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선박 소음공해 저감 대책을 EcoAction 프로그램에 포함하기로 결정함
 - 밴쿠버 항만국은 지난 1월부터 EcoAction 프로그램에 수중 소음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옵션 수를 늘려 항만 환경을 개선하고 입출항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음
 - EcoAction 프로그램은 2015년 북미 지역 해안 대기 오염물질 배출 통제구역(North American Emission Control Area·NA-ECA) 지정에 대응하기 위해 밴쿠버 항만국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
- EcoAction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선박은 항만이용료를 최대 47%까지 감면받는 인센티브를 적용 받고 있음
 - 현재 EcoAction 프로그램에서는 수중 소음 저감을 위해 선박 분류표에 따른 5개의 저소음 선박 유형 및 5가지 특정 유형의 프로펠러를 장착한 선박에 대해 항만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음
 - 밴쿠버 항만국 관계자 던컨 윌슨(Duncan Wilson)씨는 “선박 소유주에게 저소음 선박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항만 환경개선 및 무역 증진을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도모하기 위한 것”이라고 전함
 - 특히 저소음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캐나다 EcoAction 프로그램이 세계 최초임
-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·실시해 연안 지역 해양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
 - 브리티시 컬럼비아 남부해안은 현재 멸종 위기의 고래 서식지로, 주 정부 및 중앙 정부는 ‘해양보호계획’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
 - 이에 밴쿠버 항만국은 이 지역 고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‘고래 및 서식지 관찰 강화 프로그램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
■ 참고자료 : worldmaritimenews.com, 2019.2.20., portvancouver.com, 2019.2.21.

박주동 전문연구원

051-797-4660, jdpark@kmi.re.kr